

'김용익'이란 아방가르드

Januray , 2017 | 김경주 에디터

page 1 of 4

INTERVIEW

'김용익'이란 아방가르드

국제갤러리의 2016년 마지막 전시로 김용익의 개인전이 열렸다. 주제는 유토피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 그를 향한 달콤한 모순이 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난 11월 22일, 국제갤러리는 올해의 마지막 전시로 김용익의 개인전 <얇게... 더 얇게...>를 선택했다. '땀방이 하면 김용익'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원형의 반복은 김용익 그 자체이기도 하다. 원형,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도식, 그 속에는 모더니즘 회화의 미학적 추구를 향한 작가의 시각과 사회적 주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다.

박서보 사단의 막내작가(1970년대)로 미술계에 들어온 김용익은 민중미술(1980년대), 공공미술(2000년대) 등 굵직한 한국 미술사의 흐름을 온 몸으로 겪어온 산증인이다. "오랜 시간 활동한 작가치고 작품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의 말처럼, 김용익이 계대로 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단색화가 대두되기 시작한 최근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조명을 '타이밍'이란 단어로 일축했다. 김용익의 예술 세계에서 외부의 흐름은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술도 일종의 노동이다. 그는 하루의 과업처럼 묵묵하게 작업할 뿐이다.

지난 9월 일민미술관에서는 김용익의 회고전이 열렸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투신해온 한 작가의 족적이자 김용익의 예술적 행로를 한눈에 조망하는 과거의 시간이었다. 반면, 최근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얇게... 더 얇게...>는 그의 미래라 할 수 있다. 새롭게 설정한 목표를 향한 발걸음인 것이다. 보다 얇고 가벼워진 질감, 다채롭고 화려해진 색채는 그가 나아가길 길을 그려내고 있었다. 지금 김용익은 규율과 통제의 궤적을 지나 내면의 자유를 향해 발걸음을 떼고 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금까지는 개념미술, 공공미술, 민중미술 등 여러 가지 흐름에 맞춰 나 자신을 움직여왔습니다. '시대를 예술과 삶에 투영하고 싶다', '역사와 사회를 대면하고 실자라는 마음을 가져온 거죠. 하지만 일민미술관에서의 회고전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예술가로 활동해온 긴 여정을 되짚어 봄과 동시에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온 내 안의 갈등을 살펴 보게 됐어요. 또한 어떤 흐름 속에 나 자신을 투신해온 건 시대적 요구에 대한 당위성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가로서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그 요구에 반응해왔던 거죠. 이제는 자신에게 좀 더 충실하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최근 국내외 아트페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컬렉터들이 작품의 어떤 부분에 끌린다고 생각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가장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제 작품이 어떻게 흥미를 끄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원하는 걸 만들었을 때 좋은 반응을 얻는다는 건 일종의 '운'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 알게 된다고 해도, 거기에 날 맞출 순 없으니까요. 오히려 저의 관점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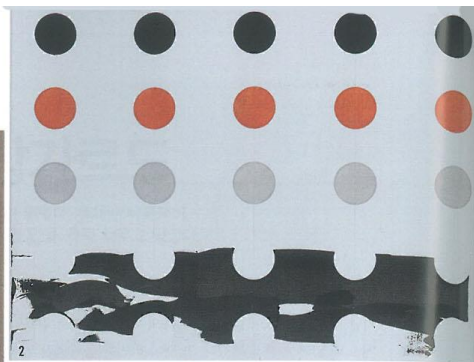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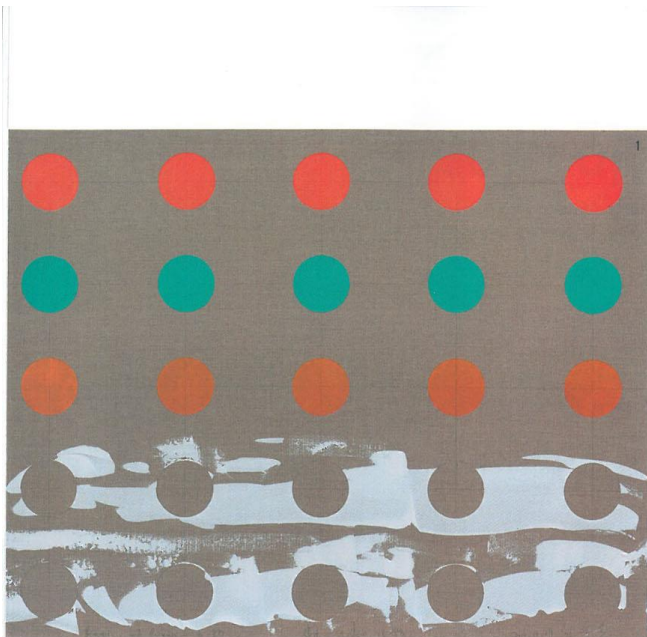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기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놔 두는 거죠. 지금까지



1 김용익 '페인 오브브레', 천 위에 에어브러시, 가변 크기, 1977, Photo by Keith Park. 2 김용익 '심면화', 캔버스에 아크릴, 캔버스에 유채, 천, 숯, 나무, 종이, 잉크, 드로잉, 통선, 황, 황로, 아세테이트지 위에 유성잉크, 157×226×16cm, 2015, Photo by NATHING STUDIO. 3 김용익 '두 조각', MDF판에 아크릴, 페인트, 240×120cm, 1989, Photo by NATHING STUDIO.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로맨틱한 예술가들이 보여온 행로와는 거리가 멀어요. 지극히 모범적이고 소시민적이었죠. 하지만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 자신을 전복시키는 힘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방가르드 정신이죠.”

1 김몽의 '일게...더 일게...#16-83', 캔버스에 혼합 재료, 91×117cm, 2016. Photo by 박준형. 2 김몽의 '일게...더 일게...#16-85', 캔버스에 혼합 재료, 91×117cm, 2016. Photo by 박준형.



는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 스스로를 혼용하고 통제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소모하기보다는 보존하는 방법을 택하려 합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가 유토피아입니다. 김용익의 유토피아는 무엇인가요.
유토피아의 어원을 살펴보면 부족함이 없는 이상향. 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삶의 행로 속에 완벽한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꿈을 꾀야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꿈이 사람을 생존시키지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저의 유토피아입니다.

모순적 결합에 매력을 느낀 이유가 있다면.

제 작업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른 형태를 지녔지만, '모순적 결합'이란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모더니스트 작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작품 속엔 항상 모더니즘에 위배되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모더니즘적 세계를 꿈꾸지만, 그것을 훼손시키고 균열시키려는 시도가 공존해온 거죠.

훼손, 균열이란 표현과는 멀게 작품에서는 밝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전작에서는 이런 무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요.

그동안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그걸 '모더니즘적 주체의 무게'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피로감을 느꼈은 거죠. 이번 작품을 통해 40여 년 동안 날 억제했던 미술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 욕구가 밝은 색 또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 겁니다.

스케치 선을 그대로 둔다거나 물감의 변질을 의식하지 않는 등 작업 방식이 러프합니다. 이런 장치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모더니즘의 균열이죠. 작품을 시작할 때 '모순된 감정을 유지하겠다'라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 울음과 그림, 선과 악 같은 모순된 상황이 함께 가는 건 기본적인 저의 신념입니다. 과거에는 둘 중 하나를 눌러 반대를 돋보이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모순 그대로를 공존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모든 작업의 핵심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재학 중 돌연 자퇴하고 홍익대학교 서양학과에 입학했다 들었습니다. 미술의 어떤 부분에 끌렸나요.

그 부분은 저에게도 여전히 불가사의한 체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농대에 가길 염원했고, 낭만적인 농부의 모습을 꿈꿔왔어요. 하지만 막상 학업으로 농업을 대하니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학기말 고사를 보고 돌아온 날,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미술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계시처럼 딱 쫓힌 거죠. 이대로 잠에 들면 결심이 사라질 것만 같아 밤을 꼴딱 썼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학교를 그만뒀죠.

규율 속에 생활해온 모범적인 모습과 다르게 강단이 느껴집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가장 엉뚱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게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대생들은 평소 정치에 무관심한 듯 예술에 집중하며 삽니다. 하지만 시위가 열리면 통제할 수 없는 불이 되어 거리로 나가죠. 이처럼 가장 비정치적으로 살던 사람이 정치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한때 비판주의에 빠

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로맨틱한 예술가들이 보여온 행로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극히 모범적이고 소시민적이었죠. 하지만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 자신을 전복시키는 힘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방가르드 정신이죠.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한 1970년대는 예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당시에는 환경이 척박하고 미술인도 많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제 더 편했죠. 기대할 게 없으니 될 대로 되라는 마음도 있었고, 아마 오늘날의 젊은 작가들이 더 힘들 겁니다. 지금은 유명 작가가 되어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기대를 걸게 되고,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스스로 힘들죠.

가천대학교(구 경원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하고, 아트스페이스 '몰'을 설립하는 등 많은 제자를 배출해왔습니다. 젊은 작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한편으론, 이제 조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가로 성장해오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정말 다양한 가치가 혼재돼 있죠. 인젠가 '아방가르드의 자기 모순성'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아방가르드는 자신을 배반하고 기존 질서에서 멀어지려 할 때 오히려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그 개념이 잘 와 닿지 않죠. 자기 전복 개념을 상실한 시대니까요. 15년 전만 해도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전복하라.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스승을 배반하라"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저 또한 부모의 바람을 저버리고 농대를 떠났고 박서보 선생님의 기대를 배반하고 다른 길로 왔습니다. 그때는 성장의 시대였고, 그것을 뒤집는 게 곧 창조와 근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성장 동력이 끊어졌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창조의 동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하죠.

실존을 걸고 독립적인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가로서 정직한 모습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과거에는 미학적인 정보, 사회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한 정직한 예술인의 모습이었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술계 안에서 '내면 성찰'은 비판 받아온 존재였습니다. 내면 대신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가지라는 요구가 이어져왔죠.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내면 성찰에 집중하려 합니다. 다들 내면 성찰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도피적 성찰은 아니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진실한 내면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

김용익 개인전

1970년대 모더니즘부터 1980~90년대의 개념미술, 민중미술, 그리고 공공미술에 이르기까지, 한국 미술의 현대사를 통해 실존적 고민을 다뤄온 김용익의 개인전. 그의 최근 2년간의 신작 30여 점이다. 단색화 이후 세대의 실천적 미술과 경향을 살펴볼 기회다.

장소 국제갤러리 2관

기간 12월 30일까지 문의 735-8449